

# Highlights

하이라이트

## 대교협 182차 이사회 개최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2012년 10월 17일(수) 서울 중구 달개비 회의실에서 제182차 이사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이사회에서는 사업예산 변동사항, 제41회 대학교육 정책포럼 계획, 대학총장협의회 현안사항, 국회 국정감사(제311회) 수감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었으며, 이사 보선(안), 대교협 사무실 이전(안), 대학입학전형위원회 규정개정(안)에 대하여 심의하였다.



## 한-스웨덴 대학총장단 국제세미나

한국대학교육협의회와 한국연구재단은 2012년 11월 9일(금) 오후 1시 30분부터 8시 30분까지 서울 메리어트호텔 3층 회의실에서 '한국-스웨덴 대학의 국제화 및 기술혁신 협력 방안'을 주제로 한-스웨덴 대학총장단 국제세미나를 개최하였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한국과 스웨덴의 고등교육 국제화와 기술혁신 정책, 개별대학 사례 발표를 통해 양국 고등교육과 연구 분야에 대한 이해의 폭을 확대하고,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 행사에 참가한 스웨덴 고등교육청장, 고등교육협력재단 사무총장, 스웨덴 대학총장단은 양국간 고등교육의 현황과 동향을 이해한 것에 대하여 만족을 표시하고, 향후 고등교육 분야에서 실질적 교류 확산 방안을 모색하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 '대학생 취업: 진단과 대안' 정책포럼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는 2012년 9월 19일(수) 오후 3시 서울 여의동 국회의사당 본관 3층 회의실에서 '대학생 취업, 진단과 대안'을 주제로 정책포럼을 개최했다. 이번 정책포럼은 새누리당 서상기 의원이 주최하고 한국대학교육협의회가 주관하였다.



'대학생 취업, 진단과 대안'의 주제 발표에서 백종국 교수(경상대 정치외교학과, 국립개발전략연구위원회 위원장)는 "일자리의 균등한 보장은 사회 양극화를 해소하는 가장 중요한 수단"임을 지적하고, "대학은 일자리의 통로로서 다양한 교육을 통해 역량을 증진시킬 역할이 있다"고 설명하였다. 또한 "대학의 취업문제는 대학 인력수급전략의 오류에 의한 것으로, 이른바 '3대 미스매치'에 기인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고학력자의 급증과 일자리의 공급 사이에 심각한 격차가 발생하는 '고학력 미스매치' ▲대졸자가 원하는 괜찮은 일자리가 부족한 '취업고용 미스매치' ▲대학측이 생각하는 직업능력과 기업측이 요구하는 직업능력의 차이가 심한 '직업능력 미스매치' 등의 세 가지를 해결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대교협 관계자는 "우리 대학들은 대학생 취업 문제의 미스매치를 해결하고 대학교육이 수단적 도구로 쓰이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대학교육이 실현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항상 고민하고 있으나, 개선효과가 즉각 가시적으로 나타나지는 어렵다"고 말하고, "고등교육 수요자가 만족할 수 있는 대학 취업구조가 될 수 있도록 대학들은 꾸준히 노력할 것이며, 대학교육의 성과가 적절한 취업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대교협이 대학의 목소리를 적극 대변하겠다"고 밝혔다.

## 바시코르투스탄공화국, 고등교육 협력 논의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는 2012년 12월 16일(일)부터 19일(수)까지 바시코르투스탄 공화국 루스탐 하미토프(Rustem Khamitov) 대통령 일행의 방한으로 한국의 우수한 고등교육 정보화 분야에 대한 협력과 교류의 장을 마련했다.

국립과천과학관 이공계 진로진학상담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2012년 11월 24일(토)~25일(일) 국립과천과학관(경기 과천) 상상홀과 창조홀에서 이공계 진로진학상담 및 특별강연을 개최하였다.

국립과천과학관과 대교협 대입상담센터가 공동주관한 이번 행사는 대입상담교사단과 대교협 전문상담위원이 이공계 진로진학상담 부스를 설치하여 고교생들에게 이공계열 학과 선택 및 진로설정을 위한 상담을 진행하고, 이공계 육성과 활성화를 위한 특별강연회도 열었다.

특별강연에서 조장희 교수(가천대 뇌과학연구소장)는 "이공계가 나라 중추", 한창수 교수(한양대 ERICA캠퍼스 공과대학장)는 "로봇의 현재와 미래", 한상준 교수(중앙대 물리학과)가 "21세기 과학기술의 전망"을 주제로 고등학교 학생과 학부모들에게 이공계열 중요성에 대한 관심과 흥미를 제공하였다.

2013학년도 정시 대입정보박람회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2012년 12월 6일(목)부터 12월 9일(일)까지 4일간 서울 삼성동 코엑스 1층 A홀에서 전국의 주요 107개 4년제 대학이 참가한 가운데 '2013학년도 정시 대학입학 정보박람회'를 개최했다. 나흘 동안 진행된 박람회에는 10만 2,000여 명이 관람하였다.



이번 정시 대학입학정보박람회에는 참가대학별 상담관뿐만 아니라 입학사정관제 및 고교-대학연계심화과정 홍보관, 입학정보 종합자료관, 진로진학상담관, 장학금지원 홍보관, 대학정보공시 및 대문화상담실, 적성검사실 등 다양한 정보제공관을 운영하였다.



대교협 사무실 이전 개소식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는 2012년 12월 20일(목) 서울 금천구 가산동에서 사무실 이전 개소식을 가졌다. 이날 개소식에는 이주호 교과부장관, 대교협 역대회장, 대학총장 및 정부, 유관기관장 등 50여 명이 참석했다.

대교협은 1982년부터 2007년까지 여의도, 2008년부터 2010년까지 상암동, 2011년부터 2012년까지 서초구 염곡동에 있다가 2012년 12월 가산동 지식산업단지내 대성디폴리스 건물에 새 사무실을 마련하여 입주했다. 올해로 설립 30주년을 맞이한 대교협은 가산동 새 사무실 이전을 계기로 대학 발전과 자율화 지원을 위한 서비스를 더욱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2012년 제7회 CEO 특강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2012년 11월 21일(수) 경복대학교에서 서울경제신문, 서울경제TV와 공동으로 대학생들을 위한 CEO 초청 특강을 개최하였다.



이날 강사로 초청된 이동형 나우프로필 대표는 '창업은 퍼즐 조각을 맞추는 과정'을 주제로 강연했다. "아무런 준비 없이 창업 전선에 뛰어들면 결코 성공할 수 없다"며 "최소한 '헤엄치는 법'은 알고 창업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토종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사이트인 이 대표는 창업을 준비하는 대학생들에게 신중한 접근을 주문했다. 그는 "누구나 전체적인 그림을 갖고 있지만, 그것을 완성하려면 조각을 구하려 다녀야 한다"며 "성공적인 창업은 필요한 조각을 찾는 과정"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그림을 완성하는 데 필요한 조각은 학교나 여행·직장 등 다양한 곳에서 얻을 수 있다"며 "그런 의미에서 학창 시절에 가장 중요한 일은 필요한 조각을 많이 모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창업은 이미 그 자체로 훌륭한 도전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인생에서 가장 잘한 선택 중 하나가 창업을 해봤다는 것"이라며 "자기 사업을 한다는 건 위험하지만 그만큼 최선을 다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직장생활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보다 개인사업에서 최선을 다하는 게 성과가 더 좋은 이유도 여기에 있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젊은이들이 창업에 많이 도전할수록 한국 사회의 다양성이 풍부해진다고 조언했다. "얼마 전 미국 실리콘밸리를 다녀왔는데 70%가 외지에서 온 사람들이어서 놀랐다"며 "기득권이 없고 늘 보이지 않는 긴장이 존재해야 모든 걸 걸고 열심히 일하게 된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기득권을 중시하면 아무리 천재가 있더라도 혁신을 이룰 수 없다"며 창업을 준비하는 젊은이들이 보다 유연한 자세를 갖출 것을 주문했다. 그러나 "성공을 위해서는 개인의 경쟁력 못지않게 구성원들의 협동심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인생에서 많은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되지만 창업과 공부만큼은 절대 후회 없는 일들"이라며 "열심히 공부하고 자신이 조금이라도 남들보다 낫다고 생각하는 분야에서 창업하라"고 조언하며 강연을 마쳤다.